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8:24에 보면 아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문들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들을 히스기야가 다시 열고 수리한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와 시설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동안 성전에 가득하여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 있었는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만 1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은 경배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였지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 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지켜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기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왕과 모든 회중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두 번째 달에 지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블론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30:18-19).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칠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악기를 울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이 다시 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칠일을 더 연장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러한 큰 기쁨은 솔로몬 이 후에 처음으로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14일 동안의 큰 기쁨의 절기를 지키고 난 후 히스기야는 다른 유다의 성읍에서도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위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성전에 직무를 위해 사람들을 임명하고 각자 자신이 맡을 일들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히스기야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왕의 주도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31:20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 당한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앗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을 때 찾아 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앞서 보았던 다른 왕들과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면 의외의 상황이 벌이진 것입니다. 오늘 32:1에서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순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와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기와 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가 처한 상황은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위기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맞이한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간증이 된 사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2:20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강하고 큰 군대인 앗수르의 모든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앗수르 왕이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 큰 군대가 천사 한 명에게 몰살을 당했으니 그의 낯이 뜨거워 질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모양은 제각각 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싸인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같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도 위기는 찾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끈이 끊어져 있을 때가 진짜 위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회개도 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와 상관 없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복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